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667천 Km ²	G D P	227억 달러 (2008년)
인구	49.56백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472달러 (2008년)
정치체제	과도군사정부	통화단위	Kyat(KT)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5.36 (2008년)

- 미얀마는 서남아 인도지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1인당 GDP 472 달러(2008년 기준) 수준의 저소득 농업국이며 제조업은 식품가공 및 단순경공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 광물자원은 풍부하나 사회간접자본 부족,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자원개발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
- 경제 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영부문 및 민간부문의 산업생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08년 싸이클론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군부독재 등으로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왔으며,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2007년 9월에 발생한 승려들 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군부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한편, ASEAN 국가들도 미얀마에 대해 민주화일정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표면적으로는 촉구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통일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지 못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13.6	3.4	3.4	1.1	1.0
재정수지 / GDP	-2.2	-2.6	-3.0	-3.5	-4.6
소비자물가상승률	9.4	20.0	33.0	26.8	10.0

자료: IMF, EIU.

□ 사이클론 피해 이후 경제 부진 지속

- 농업부문과 봉제업의 호조로 2003~05년중 10%를 상회하였던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2006~07년 농업 부문의 작황 부진, 원자재 및 자본 확보의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3%대로 하락하였음.
- 2008년에는 사이클론(나르기스) 피해 복구를 위한 원조자금 유입으로 건설부문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주요 수출대상국인 태국, 인도, 중국의 경기 둔화, 농수산물 산업의 부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쳤음.
- 특히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로 미얀마 서남부 지역의 도로 및 항만 시설이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소규모 농민 및 어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다소 악화된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취약한 세수 기반으로 만성적 재정적자

- 국방비 및 새로운 수도(Naypyidaw) 정비 사업 등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효율적인 국영기업과 지하경제의 발달로 인한 세수기반 취약

약으로 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재해 복구비용 증가로 3.5%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2010년 총선을 앞둔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6%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폭등세 진정

- 행정수도 이전과 임금인상 등으로 2006년중 20.0%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07년에도 식료품 및 유류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33%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특히 2007년 8월 정부의 유류 제품 가격 전격 인상으로 산업 전반의 부진을 초래하였으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음.

- 2008년에는 하반기 이후 국제 석유 및 곡물 가격 하락세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26.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로 2009년 1~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2%에 그치는 등 물가상승세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2009년 전체로는 1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식료품 가격상승률은 2008년 6월 30%를 기록하였으나, 식료품 공급 증가 및 쌀 수확량 증가 등으로 2009년 7월 -1.6%까지 하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국내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9년 9월 미얀마 정부가 5,000 차트(약 6,000원, 현재 최고액 화폐는 1,000 차트)짜리 신권 유통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경제구조

-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9%에 이를 정도로 농업의존도가 높으며, 제조업 비중은 19.8%에 불과하여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함.
-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및 비료 등의 부족으로 농업 생산 역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전력, 도로, 항만, 통신 등 열악한 사회 인프라로 인해 산업 기반이 매우 미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등으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도 어려운 실정임.

□ 정치 불안으로 인한 경제제재 지속

- 2003년 5월, 아웅산 수치 여사 피습사건으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주요 수출품에 해당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 등의 대미국 수출이 중단된 상태임. 특히 2007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폭력진압 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은 더욱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삼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미얀마는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3위의 삼림 보유국으로 토질이 양호한 미경작지가 많아 농산물 생산 증대 가능성이 큼.
- 철광석,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이 풍부하고,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들이 최근 개발되고 있음.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8년말 기준 17.5조 입방피트에 달하며(아시아 8위), 미얀마의 최대 외화가득원임.

□ 저임의 노동력 확보 가능

- 미얀마의 인구는 4,880만 명(2008년)이며 생산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42달러(2008/9회계연도 기준)로 임금 수준이 주변의 중국, 베트남보다 저렴함. 향후 정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저임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정책 추진도 기대되고 있음.

□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한 입지조건

- 미얀마는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소비시장을 대비한 생산기지로서 그 가치가 높고 동, 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 정책성과

□ 경제개혁 추진 부진

- 쌀, 콩류, 면화, 사탕수수 등 4대 주산품의 생산량 증대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등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임.
- 집권 군사정부는 2008년 4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65개 이르는 국영기업을 민영화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는 등 경제개혁 정책의 추진을 언급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정치 불안, 열악한 인프라,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 조치,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한 제품 불매 및 관광 중단 운동 전개 등으로 인해 한국, 인도, 태국 등의 석유, 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부문 투자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그러나 2008년 1~9월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9억 7,49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최근에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중국이 같은 기간 미얀마의 광물산업에 8억 5,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576	760	1,285	1,281	811
경 상 수 지 / GDP	5.8	7.4	7.9	4.4	2.0
상 품 수 지	2,028	2,211	3,206	3,289	2,992
수 출	3,788	4,555	6,170	6,677	6,841
수 입	1,759	2,343	2,964	3,388	3,849
외 환 보 유 액	771	1,235	2,312	3,412	3,561
총 외 채 잔 액	6,645	6,828	7,323	7,946	7,771
총외채잔액/GDP	57.3	50.4	37.7	28.1	27.1
D. S. R.	12.2	10.1	4.4	4.5	4.6

자료: IFS, EIU

□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전반적인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1위 수출품목인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상품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태국, 인도, 중국 등 인접국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로 광물자원, 천연가스, 농산품, 목재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상품수지의 흑자 유지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로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과 미얀마 정부의 과도한 수입규제 정책에도 기인함.
- 2009년 7월 천연가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상품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총 상품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30% 증가하였음. 콩의 수출 증가도 미얀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는 인접국인 인도의 높은 콩 수요에 기인함.
- 미얀마는 운송제품 및 기계류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싸이클론 이후 건설 복구 작업과 석유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건설자재 및 기계류

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09년 1~7월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에 의한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및 가스 수출 확대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로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2000년 2.3억 달러 수준이었던 외환보유고는 2001년부터 시작된 대태국 천연가스 수출로 급증세를 나타내어 2007년말에는 18.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21.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부담 과중으로 외채상환 중단

- 최근 천연가스의 대태국 수출증가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채상환실적은 부진한 상황으로 미얀마 정부는 대부분의 해외원조 상환을 중지하고 있음.

* 대외채무 연체율은 2008년말 기준으로 99.1%를 기록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수치가 2005년 2.6, 2006년 3.1, 2007년 4.1을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민주화 운동 탄압과 시위 사태 등으로 정치 불안 지속

- 1988년 집권한 군사정부 '국가평화개발위원회(SPDC)'가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자 반대 시위와 이의 강제진압이 이어지면서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2003년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테러 사건이 후 발생한 민주화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으며, '사프란* 혁명'으로 불리는

2007년 9월의 승려 중심의 반정부 시위도 무력 강제 진압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경제 제재가 강화되었음.

- * 미얀마에서 승려는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두르는 선황색 가사를 사프란이라고 함.

□ 신헌법 국민투표 강행

- 미얀마는 1988년 군사정권이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강제 진압한 이후 1974년 제정된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켜 헌법이 없는 상태였음.
- 미얀마 군정은 2005년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ASEAN의 압력으로 자유 총선 실시를 포함하는 '7단계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8년 5월 10일 및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 싸이클론의 대규모 피해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국민투표에서 9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신헌법이 통과되었으며, 군부는 이 헌법에 의한 총선을 2010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러나 신헌법의 주요 내용이 상하원 의석의 25%는 군부에 할당되고, 영국인과 결혼한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는 총선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 등 군부의 장기 집권을 제도화하고 있어 국내외적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

□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명령

- 2009년 5월 미국인 남성이 아웅산 수치 여사 자택에 무단 침입한 사건으로 미얀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당초 가택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선고했지만, 탄 슈웨(Than Shwe) 장군은 이를 감형하여 또다시 18개월의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음.
- 이는 2010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국제사회는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음.

- * 미얀마 독립의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 여사는 군부통치에 저항하고자 1988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이후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한 군정에 의해 가택 연금 조치를 당했음.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 중에도 '민주주의민

족동맹(NLD)'를 이끌고 1990년 5월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군부가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집권에 실패했음.

2. 사회동향

□ 2005년 이후 두 차례 산간지대로 수도이전

-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수도를 양곤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핀마나로 이전한 바 있음. 핀마나는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대여서 이전 배경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 그러나 정부는 2006년 3월, 다시 수도를 핀마나에서 네피도로 이전하였음. 정부는 와병중인 탄 슈웨 위원장의 참석 하에 2007년 3월 군의 날을 맞아 그 동안 비밀리에 정글 속에 건설한 새 수도를 공개하였는데, 도심 주요 지역에 미사일과 방공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요새를 방불케 하고 있음.
- 정부는 수도이전 배경을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개발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인 이유와 점성술을 신용하는 탄 슈웨 장군의 의견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짐.

□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2007년 8월 15일 군사정부가 유가 보조금 철폐 및 유류가격 인상을 전격 발표하자 8월 19일 첫 번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군사정권은 시위 주도 민주화 인사를 체포하고 승려들의 평화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진압을 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얀마 사태는 양곤, 만달레이를 기점으로 한 승려 중심의 시위(사프란 혁명)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음.
- 2007년 9월 26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정부의 발포 조치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하였고 시위는 민주화 투쟁의 성격을 지니며 계속되었으나, 계속된 군부의 강경 무력 사용으로 인해 10월 초 진압되었음. 한편 군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최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시민들의 인권이 탄압되면서 국제사회의 군정부에 대한 비난 또한 강해지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 확대

-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동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미얀마 인권 상황을 이유로 미얀마 제품의 수입 금지조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경제제재안을 승인하였고, 기존의 제재 조치 외에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인 보석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 미얀마 군정과 대화를 시도 중인 미국이 대화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대미얀마 금융제재를 모색 중이며, 이 경우 미얀마 군정은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은행과도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얻은 수입이 통제될 것으로 보임.

[참고] 미국 정부의 대 미얀마 주요 제재 조치

- 1997. 5 : 미국기업의 신규 투자 금지
- 2003. 6 : ‘버마 자유 민주주의법’ 제정, 미얀마산 제품의 미국수입 금지, 미얀마 관료의 미국내 자산 동결
- 2007. 9 : 미 재무부 지정인사에 대한 재산 동결 및 수입금지 품목 확대
- 2008. 7 : 미얀마산 보석의 수입 금지

- EU 또한 군정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와 자산 동결, 무기금수 등의 기본 제재조치를 유지하고 미얀마산 목재와 보석류, 금속 및 광물 등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EU보다는 태국, 중국, 인도 등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 인도와 주변국들은 미얀마를 통한 경제적, 안보적 혜택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해 강력한 압력이나 제재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한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감금 기간이 연장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정 규

탄을 위한 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 연합도 회원국 미얀마에서 벌어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

- * 유안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의 경우 미얀마 군정이 아웅산 수치 여사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과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일본 국제협력은행, 엔차관 지원 제한 유지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미얀마에 대한 신규 엔차관 지원이 불가한 상태이며, 미얀마에 대한 구체적인 엔차관 지원중지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엔차관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로서는 JBIC은 미얀마에 대한 엔차관 재개 또는 완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여전히 중립적 입장

- 미얀마의 정체,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민주화 조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등 과거보다 강한 어조로 미얀마를 비판하였으나, 여전히 미얀마 사태는 내정 문제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미얀마와 무역을 계속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얀마의 천연자원에 대한 사업에서 특혜를 얻고 있으며, 그 예로 2008년말에는 인도를 따돌리고 미얀마 천연가스 구매권을 따내기도 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수출입은행: E(2008.12) → E(2009.12)

- OECD: 7등급(2008. 4) → 7등급(2009. 4)
- Euromoney: 176/185(2008. 9) → 183/186(2009. 3) → 182/186(2009. 9)
- I.I.: 173/177(2008. 9) → 174/177(2009. 3) → 174/178(2009. 9)
- I.C.R.G.: 134/140(2009. 1) → 137/140(2009. 7) → 137/140(2009. 11)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 인수금지
- ECGD : 인수불가
- Atradius : 제3국 확인 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년 5월 16일(북한과는 1975년 5월 16일 수교, 1983년 단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7년),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2002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미얀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미얀마	2007	2008	2009.1-11	주요품목
수 출	292	244	360	철강제품, 기계류,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수 입	81	116	72	원유, 의류, 곡실류, 목재류
합 계	373	360	433	

자료: 한국무역협회

- 미얀마와의 교역규모는 2007년 3억 7,267만 달러, 2008년 3억 6,007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또한 2009년 1~11월에는 대미얀마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4억 3,258만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제품은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제품은 석유류임.

- 미얀마와의 교역규모는 2007년 3억 7,267만 달러, 2008년 3억 6,007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또한 2009년 1~11월에는 대미얀마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4억 3,258만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제품은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제품은 석유류임.
- 우리기업의 대 미얀마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9월말 기준 191건, 9,805만 달러(투자누계 기준)에 그치고 있음

□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 개발 사업 참여

- 우리나라의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A-1, A-3 광구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판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음. 해당 광구의 가스 매장량은 국내 기업이 발견한 해외 가스전 중 최대규모인 5.4조-9.1조 입방피트임.

* 지분: 한국 70%(대우 60%, 한국가스공사 10%), 인도 30%(Gail 10%, ONGC 20%)

-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업이 민주화와 인권을 외면한 군부정권과의 거래라는 국제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음. 현재 건설예정 중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많은 국민들이 동원되어 정부로부터 노동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자원개발이 현재 군부정권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음.

VI. 종합 의견

- 미얀마의 경제 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영부문 및 민간부문의 산업생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2008년 싸이클론 피해 복구를 위한 원조자금 유입으로 건설부문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둔화, 농수산물 산업의 부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쳤음.

- 특히 싸이클론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악화된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수기반취약,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하고 유류제품, 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까지 2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2009년에는 식료품 가격 둔화로 1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국내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이후에는 물가수준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1988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 심각한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가 크게 불안한 상황임. 특히 2009년 8월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 또다시 가택연금 명령이 내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여론이 형성되는 등 당분간은 불안한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천연가스의 태국 수출증가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채상환실적은 부진한 상황으로 미얀마 정부는 대부분의 해외원조 상환을 중지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이 세 린 (☎02-3779-5655)
E-mail: srlee@koreaexim.go.kr